

한국번역학회의 태동과 발전

최 희 섭
(전주대)

1. 들어가기

한국번역학회는 학술지의 발행규모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의 숫자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학회 중의 하나이다. 한국번역학회의 창립 이후 여러 대학에서 번역학 관련 연구소가 개설되었고, 여러 단체에서 번역학 관련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번역학 관련 학술지는 본 학회의 학술지를 비롯하여 『통번역학연구』(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 『동화와 번역』(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통역과 번역』(한국통역번역학회), 『통번역교육연구』(한국통번역교육학회) 등 다섯 개의 학술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학연구의 불을 지핀 것은 한국번역학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의 연구소나 다른 학회들은 대부분 본 학회의 발전을 본받아,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본 학회의 창립 이전에 존재했던 연구소도 있기는 하지만 본 학회의 창립 이전에 학술지를 규칙적으로 발행하거나 번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학회가 우리나라의 번역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

1) 번역학연구소(동국대학교), 통·번역연구소(한동대학교), 번역과레토릭연구소(고려대학교), 번역인문학연구원(고려대학교), 통번역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이화여자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등이 우리 학회 창립 이후 설치된 대표적인 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는 데 이의를 다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²⁾

한국번역학회는 전국 각지에서 500명이 넘는 어문학 관련 전공교수가 참가하여 1999년 10월 30일에 창립되었다(제1권 창간사). 본 학회의 학술지 『번역학연구』 창간호가 발행된 것이 2000년 6월 말이니 학회가 태동하여 학술지가 창간되기까지 겨우 반년이 걸린 셈이다. 『번역학연구』는 2000년 봄에 창간된 이후 매년 2권씩 정기적으로 발행되었고, 2008년부터 매년 네 권씩, 그리고 2012년부터는 영문판 학술지 한 권을 추가 발행하여 매년 다섯 권씩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학술지가 발행되는 것은 번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연구분야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각 권에 수록되는 논문의 숫자가 10여 편 남짓에 이르기 때문에 매년 오십여 편의 번역학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본 학회는 매년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학술대회 때마다 이십여 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번역학 연구의 이러한 활성화에 한국번역학회가 초석을 놓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고, 본 학회가 우리나라의 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³⁾

이렇게 발전하는 번역학 연구의 오늘이 있기까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록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나라

- 2) 한국통역번역학회는 1998년에 설립되어 1999년부터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으나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다가 최근에 비교적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1979년 통역번역대학원이 개교한 이후 1997년 5월에 통역번역연구소가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었고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http://www.hufscit.com/iti/history.html#t>). 연세대학교에 1989년 언어정보연구원이 설치되었고 2009년 04월 한영, 한중 기계번역을 위한 ‘SKT-YONSEI 말뭉치’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http://ilis.yonsei.ac.kr/subbbs/sub.php?grid=g1&top_id=g1_b3&skin=basic2&id=1&view=). 1964년 인문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92년 번역문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http://inmun.yonsei.ac.kr/>). 이 세 곳이 한국번역학회 창립 이전에 번역학에 대한 관심을 둔 학술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1996년 설립)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1963년 설립)이 우리 학회보다 먼저 설립되었으나 외부에 개방된 기관은 아니다.
- 3) 2013년 1월 15일자 중앙일보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문기구인 학술진흥정책자문위원회의 학술지 선호도 조사(2012년 11월) 결과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번역학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5634개의 학술지 중에서 62위에 속한 것으로 공인되었다(<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40/10418240.html?ctg=>).

라의 현실에서 더 많은 세월이 흘러 모든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학회 창립과정의 비화까지 기록하여 한국번역학회의 역사를 후학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부차적인 목적이다. E. H. 카(Carr)가 『역사란 무엇인가』의 제2장에서 “바람직한 역사해석은 역사가의 과거에 대한 시각이 역사가의 당대의 문제에 대한 통찰과 어우러질 때(37)” 성취된다고 하였듯이 현재 한국번역학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도 담고 있다.⁴⁾ 이에 고문님들을 모시고, 한국 번역학회의 창립 및 발전과정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과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수합 정리하여 한국번역학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발전을 전망해본다.

2. 역사적 고찰

2013년 1월 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대추나무 생고기집’에서 김용권, 유명우, 김지원, 성백환, 한일동 및 최희섭 고문(당시 회장)과 허명수 수석부회장 그리고 김정우 회장(당시 총무)이 자리를 함께 하여 점심 식사를 하며 학회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식사 후 근방의 르 메이에르 빌딩 지하에 있는 ‘전통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약 세 시간 동안 고문님들이 기억을 되살려 처음에 학술단체를 조직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술지를 발간할 때의 여러 가지 상황 및 그 동안의 일들을 말씀하였다. 아래는 ‘전통찻집’에서 찍은 사진이다.

4) 카(Carr)는 이 저서의 제1장에서 역사해석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강조하고, 제2장에서 역사가 자신(개인)과 동시대와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영국의 역사가 그로트(George Grote)의 『그리스의 역사』, 독일의 역사가 몸젠(Mommsen)의 『로마사』, G. M. 트레벨리안(Trevelyan)의 『앤 여왕시대의 영국』 등의 저술에 역사가 자신들의 당대사회의 기류가 반영된 예로 들고 있다(36-38).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한 모습.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백환, 한일동, 최희섭, 김지원, 허명수, 유명우, 김용권, 김정우(존칭, 직함 생략)

2.1. 창립과정

고문님들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한국번역학회의 창립과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고 우선 창립 동기부터 듣기로 하였다. 고문님들이 밝힌 창립 동기는 다음과 같다.

1998년 중국 외국어대학에서 아시아 번역가 협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유명우 교수가 한국 번역가협회 부회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중국은 학회와 협회의 구분이 없이 학술활동과 번역활동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회와 협회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당시 한국번역가 협회의 유근조 회장, 방곤 교수, 윤종혁 교수 등이 “번역가 협회는 번역 실무를 하고 있는데,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한국번역학회를 설립하라”고 유명우 교수에게 촉구하였다. 유명우 교수는 당시 지방에 위치한 대학(호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과 교수들이 많이 있는 서울 지역의 교수와 협력하여 학회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유명우 교수는 서울 지역의 대학에 근무하는 지인들 중에서 세종대 김지원 교수가 활동적이며 번역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번역학회

설립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1999년 3월~4월 여러 차례 회동하여 번역학회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유명우 교수와 김지원 교수는 번역학회 설립을 논의하기 이전에 평소 안면이 있었는데, 서로 번역학회의 설립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다. 그것은 1999년 2월에 세종대학교에서 번역 특강 강좌를 준비한 것이었다. 김지원 교수는 학과 동료인 박현수 교수와 함께 특강 강사를 섭외하면서 1998년 가을에 한국번역가 협회를 방문하여 유명우 교수를 만났다. 이 때 유명우 교수와 김지원 교수는 번역학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였다.

두 분은 번역학회 설립을 위하여 우선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1999년 봄에 전남대에서 개최된 한국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구두로 홍보를 하고 참여의사를 타진한 결과 20여 명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이러한 호응에 힘을 얻은 두 분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발기인 모집을 위하여 학회 창립 취지문을 한국영어영문학회의 회원들 중 일부인 700~8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때 발송한 창립 취지문 원본은 지금 확보할 수 없으나, 그 문안은 학회지 창간호에 수록되어 있다. 학회지에 수록되어 있는 문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번역학회 창립 취지문

번역은 언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번역에 대한 관심은 아주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번역이 언어간에 일어나는 하나의 엄연한 인문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기술이나 실무적인 일로 간과해버린 결과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번역 현장에는 오역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번역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번역을 학문으로서 체계화시키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번역을 실천하고 장려하여 부실한 국가 어문 정책을 바로잡고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말과 글을 국제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번역학회의 창립이 갖는 역사적 의의가 지대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번역과 번역학의 정립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한국번역학회 창립 발기인 일동 (249)

학회지에 수록되어 있는 창립 취지문의 날짜가 1999년 10월 30일인 것은 그 날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인데, 창립발기인을 규합하기 위해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취지문의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원 전체에게 창립 취지문을 발송하지 않고 일부를 선별한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않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 위주로 창립취지문을 보냈다.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창립취지문을 발송하였는데, 예상 외로 많은 250여명이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가입동의서를 보내왔다. 이 때 수합한 가입동의서는 세종대학교 김지원 교수 연구실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으나 학교의 건물이 신축되어 새 건물에 마련된 공간으로 연구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제반 서류가 상당부분 분실되어 현재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한국번역학회의 창립 발기인이 250여명의 규모가 된 데는 성백환 교문의 힘도 컸다. 경희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성백환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으로 당시 통번역대학원 총동문회 회장을 하고 있었기에 동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일반 어문학 전공자보다 통번역 대학원졸업생이 번역학회 설립에 관심이 많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에 성백환 교수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과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김지원 교수의 노력으로 세종대학교에서 150만원을 지원받아 사용하였다. 학회가 조직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창립을 위한 경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가을에 창립총회를 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1999년 가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방명록을 작성하였으나 김지원 교수가 연구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정확

한 인원과 명단은 파악할 수 없다.

2.2. 초대회장 초빙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서강대학교에서 1996년 2월에 정년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김용권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초빙하였다. 김용권 명예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초빙하는 일에는 유명우, 김지원 두 교수가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학술단체가 창립될 때 초대회장은 창립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분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번역학회는 유명우, 김지원 두 교수가 창립을 주도하였지만 이분들이 초대회장을 외부에서 초빙하기로 결정하고 적임자를 물색하였다. 외부에서 초빙하고자 한 이유는 신설학회로서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은 분을 초빙함으로써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외부의 입김을 막고자한 것이었다. 김용권 초대 회장 이외에 당시 물망에 올랐던 분들은 이재호(성균관대), 김종훈(서울대), 이경식(서울대), 김치규(고려대) 등인데 이분들은 사전 접촉과정에서 모두 사양하였다.

1999년 6월에 유명우, 김지원 교수가 김용권 교수를 자택으로 찾아가서 초대회장을 수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용권 교수에게 학회의 창립 취지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초대회장 수락을 촉구하였다. 김용권 교수는 전에 한국영어영문학회, 한국아메리카 학회 등 여러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으므로 한국번역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초빙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기 때문이었다. 김용권 교수는 서강대 대학원장(1985-89)으로 재임시 미국의 대학 교과과정을 연구하는 중 일부 대학에 번역학(Translation Studies) 과목이 있음을 발견하고 대학원 영문과와 학부에 “번역학”을 개설한 바 있다. 또한 수잔 바스넷(Susan Bassnett)의 저서 『번역학』(Translation Studies, 1980)과 『비교문학』(Comparative Literature, 1993)을 구해 읽는 등 번역학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였다.

김용권 교수는 학회의 초대회장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수락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유명우, 김지원 교수와의 사적인 인연을 무시할 수 없었다. 김용권 교수는 오래 전부터 유명우, 김지원 교수와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교류관계를 예로 든다. 유명우 교수가 한국추리소설가 협회에서 총무를 할 때, 김용권 교수는 이 협회의 회원은 아니었지만, 협회 회원들의 모

임에는 많이 참석하였다. 이 협회의 모임은 대부분 서울 종로구 종로 2가에 위치한 ‘운정’이라는 음식점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음식점은 우리나라 영문학 관계 모임의 산실과 같은 역할을 한 장소였다. 최근 재개발로 인하여 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영문학 관계 모임은 한국영어영문학회의 창립이전부터 이곳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한국추리소설가 협회의 모임도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김용권 교수와 유명우 교수는 이곳에서 이루어진 한국추리소설가 협회 모임에서 만나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다.

김용권 교수와 김지원 교수의 인연도 상당히 깊다. 김용권 교수가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을 역임할 때 김지원 교수가 이 학회의 이사로 활동하였다. 김지원 교수가 연암재단의 교수해외파견 지원 사업에 응모했을 때, 김용권 교수는 심사위원이었다. 김용권 교수가 김지원 교수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김지원 교수는 연암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갔었다. 또한 김지원 교수가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블라이쓰데일 로맨스』(*Blithedale Romance*)의 번역으로 대산문화재단의 번역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을 때에도 김용권 교수가 이 사업의 심사위원이었다.

유명우, 김지원 두 교수가 이와 같은 사적인 인연과 교류 관계를 거론하며 초대회장 수락을 촉구하자 숙고를 거듭하던 김용권 교수가 “내가 몇 번째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유명우 교수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말은 지금까지도 세 분이 자주 떠올리며 웃음을 짓는 구절이다. 이에 김용권 교수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만”이라고 답하며 초대회장을 수락하였다. 아래는 이 이야기를 하며 웃는 장면이다.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허명수, 유명우, 김용권, 김정우, 한일동, 최희섭, 성백환, 김지원
(존칭, 직함 생략)

김용권 교수가 초대 회장직을 수락한 후 세 분은 창립총회 날짜를 논의하였다.

2.3. 창립총회와 학회 명칭

한국번역학회의 창립총회는 1999년 10월 30일에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원래는 10월 16일이나 23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초대회장을 수락한 김용권 교수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갔다가 10월 말에 귀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귀국 직후인 10월 30일로 날짜를 조정하였다. 창립총회인데 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개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날짜를 조정했는데, 날씨도 좋았고 지리적 접근성도 좋아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장소를 세종대학교로 택한 이유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세종대학교가 학술대회 개최비용 150만원을 지원하였고, 때마침 사회교육원에 번역과정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창립총회에서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및 감사를 선임하는데 신문대 김린 교수의 부군인 김종문 씨가 자원하여 감사로 임명되었다. 창간호에 있는 한국번역학회 임원 명단에 임원 각자의 소속 대학과 전공 외국어가 밝혀져 있는데 유독 김종문 씨만 번역회원이라고 되어 있다(3). 임원은 학회 창립에 직접, 간

접으로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임명되었는데, 김종문 씨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한국번역학회 회칙 제 5조 회원의 자격 기준 제 2항에 번역회원 자격은 “번역에 종사하고 있거나 번역 출판에 관심이 있는 자”(창간호 251)로 되어 있다. 당시 한국번역가 협회의 회원은 한국번역학회의 번역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종문 씨는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감사를 자원하였다. 학회 창립에 앞장섰던 유명우, 김지원 교수는 각각 수석부회장, 총무를 자원하였다.

“한국번역학회”라는 명칭에 관하여도 학술대회 창립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번역학회의 창립 이전에 강남 어학원의 박원장이 주축이 되어 연세대학교의 손한 교수를 회장으로 초빙하여 한국번역학회라는 이름으로 학회를 설립하였다. 유명우, 김지원 교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이전부터 학회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였다. 동일한 명칭의 학회가 두 개 존재하면 연구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대한번역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과 기왕에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한국번역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에 한국번역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있지만 이 단체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학회의 대외 인지도가 높아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과 영어로 표기할 때 둘 다 “Korea”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처음 생각한 대로 “한국번역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동일한 이름인 한국번역학회라는 명칭의 학술단체가 두 개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수학한 분들이 우리 학회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우리 학회의 초창기에 연세대학교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분들이 우리 학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다. 강남 어학원에서 설립한 한국번역학회라는 단체는 학술활동을 하지 않고 한동안 존재하다가 어느 사이엔가 자연 소멸하였다.

2.4. 창립 당시 회원 상황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번역학회 창립당시의 입회원서 및 명부 그리고 방명록 등 많은 자료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번역학회의 창립 당시의 회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00년 가을에 출판된 『번역학연구』 제 1권 2호에 “한국번역학회 주소록”이 수록되어 있어 창립 후 1년 정도 지난 시기의 회원 상황을 알 수 있다(191-225). 이 주소록에는 회원 569명의 이름과 소속, 전공,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이메일이 수록되어 있으며 8개의 단체가 기록되어 있다. 회원들의 전공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전공별 회원 분포도

언어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독어	한국어	기타 외국어	전공 밝히지 않음	기타
인원	382	57	21	18	11	6	18	38	18

위의 표에 보이듯이 영어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전공을 밝히지 않은 분들은 번역회원이 30명, 학술회원이 2명으로 이들 대부분의 전공이 영어일 것으로 짐작된다. 전공을 밝히지 않은 분들 중에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공을 밝히지 않은 분이 3명, 소속도 전공도 밝히지 않은 분이 3명, 학술회원이 2명이다.

기타 외국어로 분류한 18명은 각 언어별로 1명 내지 2명인데,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미얀마어, 노어(러시아어), 베트남어, 이탈리아는 각각 2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남아시아어, 마인어, 태국어, 중앙아시아어는 각각 1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위의 표에서 기타로 분류한 회원은 행정, 관광경영, 조리과, 철학, 법학 등이 각각 2명, 통상협력, 물리, 경제통상, 교양학과, 신방과, 간호과, 비서학과, 무역학과가 각각 1명이다. 이를 볼 때 번역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들은 외국 언어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언어전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의 전공자도 번역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회의 초창기에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번역가협회의 일부 회원들을 당연히 한국번역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렇기에 소속을 번역회원으로 기재한 회원이 76명이다. 번역회원 이외에도 일부는

학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름만 빌려온 경우도 있는데, 이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회원의 소속을 살펴보면 소속이 대학으로 되어 있는 분이 육사 포함 484명이고,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이 85명이다. 85명에는 국사편찬위원회 1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명, 특별회원⁵⁾ 1명, 국제한국영어연구소 1명, 학술회원⁶⁾ 2명, 소속을 밝히지 않은 분 3명이 포함되어 있다. 학회 창립 당시에는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고 일반회원은 학술회원과 번역회원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회칙을 계속 수정하면서 회원과 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학회 초창기에 평생회원 제도를 도입하여 평생회원을 모집하였으나 평생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다. 2003년 말까지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지연(서울시립대), 고영미(세종대), 고영민(경동대), 광성희(초당대), 권정희(숙대), 김수일(부산외대), 김용권(서강대), 김지원(세종대), 김효중(대구가톨릭대), 박옥남(세종대), 박향선(부산경상대), 오세열(경문대), 유명우(호남대), 이명균(창원대), 이영옥(경희대), 이자원(국민대), 이현석(서울산업대), 정은주(경문대), 조재영(한국외대), 한혜경(동덕여대), 엄행일(경희대), 성백환(경희대), 조성원(서울여대), 조홍섭(충북대), 이만희(번역회원), 이재호(성균관대), 최말순(세종대), 신지선(세종대), 변선화(번역회원), 이동영(세종대), 박규상(번역회원) 이상 31명 (4권 2호 123)

평생회원은 몇 년 동안의 연회비를 일시에 납부하기에 학회 재정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후 평생회원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래도 소수의 회원이 부득이 평생회비를 납부하였고, 일부 회원들이 평생회비 납부를 강력히 촉구하여 2012년에 평생회원 가입을 재개하였다.

5) 특별회원은 번역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또는 외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한국번역학회 회칙 제 5조 3항)

6) 학술회원은 대학에서 번역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거나 번역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교원(한국번역학회 회칙 제 5조 1항)

2.5. 학술지 발행

한국번역학회 창립총회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00년 봄에 『번역학연구』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신설학회로 원고 모집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 주로 유명우, 김지원, 성백환 교수가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원고를 수합하였다. 성백환 교수가 당시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동문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연락한 것이 주효했다. 이 때에는 번역학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논문 발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었기에 자발적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들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주요 임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원고를 청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논문의 심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다 수합되면, 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읽고 철자를 바로잡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교정을 거쳐 출판하였다. 이때 논문의 수준에 대하여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 청탁에 의한 것이므로 수준을 제고할 형편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김용권 회장이 모든 논문을 직접 읽고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때문에 초기의 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특히 번역학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번역학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학 고유의 논문 주제라든지 연구분야를 특정할 수 없었다.

2001년에 세종대 대학원 영문과에 번역학 과정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였는데, 성백환 교수가 적극적으로 홍보, 권유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진학하였다. 이때부터 번역학회와 세종대 번역대학원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학술지 초창기에는 투고되는 논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대 번역대학원 학생들에게 거의 반 강제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도록 하였으므로 학술지의 발전에 세종대 번역대학원이 큰 기여를 하였다. 이 때 적극적으로 활동한 학생들 중 일부는 현재 유명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초창기에는 학술지를 특정한 날짜에 출판할 수 없었고, 대체로 예정보다 늦게 출판되었다. 제 1권 1호와 2호 그리고 제 2권 1호의 발행 시기가 봄과 가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술지들이 이러한 상태였고, 한국번역학회의 학술지도 예외가 아니었

다. 제 2권 2호부터는 발행시기가 고정되었다. 각권의 1호는 6월 30일에 2호는 12월 31일에 발행됨으로써 학술지 발행의 정시성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2003년이다.

번역학의 연구 범주는 매우 넓다. 언어와 번역의 관계, 번역가의 임무와 한계 및 역할, 번역사(翻譯史), 번역 이론, 번역 과정, 번역방법, 텍스트의 문제, 번역과 문화, 번역과 사회, 영상번역, 번역평가 등 다양한 연구가 번역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김정우 교수의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과 최희섭 교수의 「『번역학연구』의 현황과 국내문헌 인용 고찰」 등 두 편이 있다.

김정우 교수는 2005년 12월에 발행된 『번역학연구』 제 6권 2호에 수록된 상기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번역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과 다른 한 종류의 번역관련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점검하였다. 그는 홈즈(Holmes)의 번역학 체계에 따라 학술논문을 분류했다. 번역학을 우선 순수 번역학(pure translation studies)과 응용 번역학(applied translation studies)으로 구분한 다음 하위 분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추후 번역학의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김정우 29-57). 김정우 교수의 논문은 『번역학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한 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연구분야를 세밀하게 점검함으로써 2000년대 초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최희섭 교수는 2007년 6월에 발행된 『번역학연구』 제 8권 1호에 수록된 상기 논문에서 『번역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김정우 교수가 이용한 홈즈의 번역학 체계에 따라 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류하여 통계화하고 필자 별 수록논문 편수를 통계화하여 각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와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학자들이 국내문헌을 어느 정도 인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국내문헌을 본 학술지 본인 논문, 본 학술지 타인 논문, 타 학술지 본인 논문, 타 학술지 타인 논문, 본인 저서, 타인 저서, 본인 역서, 타인 역서, 기타 등 9 가지로 분류하여 각 논문별로 인용정도를 계량화하였다(323-45). 이는 후에 연구재단에서 학술지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인용지수 산정방법보다 세분화된 것이다.

한국번역학회의 학술지 『번역학연구』는 창간 때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두

차례 발행되다가 회원들의 논문 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네 차례 발행되었다. 2012년부터는 영문 학술지 한 호를 포함하여 매년 다섯 차례 발행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학회 회원이 증가하고, 논문 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섯 차례, 또는 그 이상의 발행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2013년에는 매 호의 수록 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나 학술지의 증간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번역학회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영문학술지를 증간할 필요성이 있다.

2.6. 『번역학 백과사전』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의 번역, 출판에 얹힌 이야기도 흥미롭다. 유명우 교수가 초당대에서 자리를 옮긴 숙명여대 광성희 교수의 연구실을 2003년에 방문하여 서가에 꽂혀 있는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998)을 발견하였다. 이 책은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등 세계적인 학자 98명이 참여하여 만든 백과사전이다. 제 1부와 제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 1부는 “성경번역”, “번역교육”, “번역비평” 등과 같은 번역관련 표제어 81개를 설명하고, 제 2부는 영국, 아랍, 중국 등 31개국의 번역역사와 유명한 번역가를 소개하고 있다.

유명우 교수가 2003년에 이 책을 학회에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곧 이어 학회 회원들 중 32명의 필진을 구성하여 번역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작업에 참여한 32명의 필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과 청탁에 응한 분들로 구성되었다. 이 책을 복사하여 각자 번역할 부분을 할당하여 발송한 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번역을 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주어진 기간에 번역작업을 완료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하였다. 22명의 필진은 마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고, 학회에서는 마감기일을 계속 연기하였다.

한편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유명우, 김지원 두 교수는 한신문화사와 접촉하여 출판계약을 맺었다. 한신문화사는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인세를 미리 주어 이 돈으로 작업경비를 충당하였다.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기한이 지나고, 한신문화사는 미국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초를 겪고 결국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당시 한신문화사 사장인 박태근 씨는 어떻

게 하든 이 책을 자신이 출판하겠다고 하였다.

번역작업이 한동안 중단되고, 출판사가 문을 닫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번역 필진을 절반 이상 대폭 교체하여 번역작업을 새로 착수한 것이 2005년이 었다. 번역원고가 수합되어 출판사로 넘기기 전에 전체적으로 원고를 살펴본 결과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 다시 수정, 교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수차례의 수정과 교정을 거쳤어도 미비한 점이 계속 드러나 원고를 출판사에 넘길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주요 임원으로 구성된 9명의 감수위원이 감수작업을 다시 하여 2009년 3월 30일에 드디어 출간하였다.

이때는 이 책의 제 2판이 2008년 10월 28일 출판되어 시판되고 있는 상태 였다. 감수작업을 하는 중에 제 2판이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학회 임원들 은 초판의 번역출판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 2판의 내용이 제 1판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적어도 절반 이상이 바뀌었음을 확인한 후 번역판을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번역작업에 참여한 회원은 47명이며, 양장본으로 출판된 『라우 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번역본은 930여 페이지에 이른다. 2003년에 착수한 작업이 육 년여의 기간을 거쳐 드디어 빛을 본 것이다.

2.7. 홈페이지

한국번역학회 홈페이지의 주소도 또한 해프닝이 있었다. 한국번역학회에서 2000년에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면서 한국번역학회의 영어 명칭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의 첫 글자를 따서 “KATS”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하고자 하였다. 이때에는 각 기관과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붐이 조성된 시기였기에 홈페이지 주소를 매매하는 일이 성행 하였다.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하려면 등록비가 필요한데,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 이 홈페이지 주소를 선점하여 등록하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때 이를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학회가 현재의 홈페이지 주소인 <kats.or.kr>을 등록하려고 할 때 이 주소를 누군가가 이미 점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여 홈페이지 도메인을 구입 하기 위하여 <kats.or.kr>을 신청하였으나 이 도메인은 누군가가 등록해놓은 상

태였다. 홈페이지 도메인은 학회 명칭과는 달리 동일한 것을 두 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회는 2000년 9월 1일 <katrans.or.kr>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홈페이지 열풍이 사그라지고, 홈페이지 주소를 매매하는 사업이 부진해지게 되었다. <kats.or.kr>이라는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던 곳이 도메인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메인 주소가 사라져 버렸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이 주소로 바꾸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초창기의 학술지에는 앞표지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가 <www.katrans.or.kr>로 기록되어 있는데, 2006년 12월호(7-2호)부터 <kats.or.kr>로 기록되어 있다. 예전에는 <katrans.or.kr> 앞에 “www”를 넣어야 했지만, 지금은 “www” 없이 <kats.or.kr>로 간략하게 되었다. 2000년 초에 한국번역학회의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한국학술정보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년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2011년까지 한국학술정보에서 계속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였다. 2011년에 누리미디어와 학회 홈페이지 관리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현재는 누리미디어에서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2.8. 학술지 학진 등재

우리 학회의 역대 회장은 김용권(1999.11-2001.10), 유명우(2001.11-03.10), 김지원(2003.11- 07.10), 성백환(2007.11-09.10), 한일동(2009.11-11.10), 최희섭(2011.11-2013.10) 등이다. 2014년 현재 김정우 회장의 임원진을 8대 임원진이라고 하는데 고문이 6분인 이유는 김지원 교수가 제 3대와 4대 회장을 연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학회가 대부분 회장은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학회에서 김지원 교수가 회장을 연임한 것은 학술지의 학술진흥재단⁷⁾ 등재와 관련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전문학회가 창립되면서 학술지의 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을 통하여 학술지의 평가를 하기 시작하였다. 학술진흥재단에서도 학술지 평가와 관련하여 정

7) 지금은 연구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음

보가 없는 상태였기에 2000년 초에는 몇몇 교수들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술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학술단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학술지를 인정과 불인정으로 구분하였다. 일부 학회는 신청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회는 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업은 한번 시행한 후 재개되지 않았다.

학술진흥재단에서는 연구를 거듭한 후 학술지 등재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학술지를 평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등재후보로 인정을 하고 이후 계속 평가를 받아 두 번 연속 통과하면 등재로 인정을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시행할 때 김지원 교수가 한국번역학회 제 3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김지원 회장은 학술지에 수록되는 논문 심사과정의 엄정성 및 탈락률과 정시발행 등이 중요한 평가지표인 등재후보로 신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술지를 등재후보나 등재로 신청하는 것은 신청 전년도에 학술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원 교수는 2004년부터 봄부터 2003년의 자료를 수합하고 준비했다. 당시에는 투고 논문의 접수와 심사 등을 대체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미비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를 완비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다. 투고논문 접수대장, 심사대장, 심사결과서, 심사위원의 업적 수합, 기타 작업 등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김지원 회장은 당시 부회장이던 한일동 교수, 총무인 성백환 교수, 편집위원장인 최희섭 교수를 주말마다 연구실로 불러 작업을 진두지휘하였다. 미비된 자료를 보강하고, 편집위원들의 자료를 수합하는 등 많은 작업을 거쳐 500여 페이지에 이르는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해 여름에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04년 12월 30일 우리 학회의 학술지 『번역학연구』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당해연도 발행분부터 등재후보로 인정되었다. 학술지가 등재후보로 되었다고 하여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 두 차례 더 심사를 받고 통과되어야 등재지로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평가 준비 작업의 일원화를 위하여 부득이 김지원 교수가 회장을 연임하게 되었다. 김지원 교수가 연임하면서 임원진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지만, 평가작업을 직접 진행했던 사람들 세분은 자리이동만 하였다. 총무였던 성백환 교수를 부회장으로, 부회장이었던 한일동 교수를 총무로 자리 이동하고, 편집위원장이었던 최희섭 교수는 유임되었다.

김지원 교수의 지휘 아래 성백환, 한일동, 최희섭 교수는 등재후보 계속 평

가 작업을 진행하여 2005년과 2006년에 계속 평가를 연속적으로 통과하여 우리 학회의 학술지 『번역학연구』가 2006년부터 등재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2008년과 2010년 그리고 2013년에 등재 계속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등재지로 인정받고 있다.

2.9. 국제학술대회

성백환 교수는 제 5대 회장으로 재임 중에 한국번역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기 되자 이를 기념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준비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임원들이 자주 모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매월 독회를 개최하였다. 성백환 교수의 근무처인 경희대학교에서 매월 개최되는 독회에 주요 임원들이 계속 참여하여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였다. 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학원 학생들이었지만, 주요임원들은 독회 후 개최되는 회의 때문에 부득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자주 만나 국제학술대회 준비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한국번역학회 제 1회 국제학술대회는 대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의 모나 베이커(Mona Baker) 교수와 아일랜드 더블린 시티 대학교(Dublin City University)의 마이클 크로닌(Michael Cronin) 교수 및 하계 언어학 연구소(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SIL International)의 어거스트 구트(Ernest-August Gutt) 총재를 기조연사로 초청하여 숙명여대에서 개최되었다. “번역과 세계화”(Translation and Globalization)를 주제로 2009년 10월 30-31일 양일간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내외의 학자들 60여명이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번역학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기존에 연 2회 발간하던 『번역학연구』를 성백환 교수가 회장으로 재임하는 시기인 2008년부터 연 4회로 증간하였다. 또한 국제학술대회를 앞두고 학회의 로고를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학회의 로고를 새로 만들었다.

한국번역학회의 제 2회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영국 리즈 대학교(University of Leeds)의 제레미 먼데이(Jeremy Munday)교수,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앰허스트 캠퍼스(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의 에드윈 겐츨러(Edwinn

Gentzler) 교수, 스페인 오비에도 대학교(Universidad de Oviedo)의 로베트로 발데온(Roberto A. Valdeón) 교수,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나 주립대학교(Moscow State University)의 니콜라이 가르보츠키(Nicolai Garbovskiy) 교수를 기조연사로 초청하였다. 이 중에 두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에서 초빙하였고, 두 분은 우리학회에서 초청하였다. “번역학연구와 실제에 대한 관점 다시보기”(Rethinking Perspectives in Translation Research and Practice)를 주제로 초청연사 네 분을 포함하여 16개국 학자들 66분의 발표가 2013년 10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도 좋겠다고 판단하고 가을 학술대회는 가급적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연구소와 공동으로 이화여대에서 10월 17일 18일 양일 간에 걸쳐 제 3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파리 제 3대학교(Université Paris 3)의 다니엘 길(Daniel Gile) 명예교수, 홍콩 침례대학교(Hong Kong Baptist University)의 더글러스 로빈슨(Douglas Robinson)교수, 몬터레이 국제학연구소(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민후아 리우(Minhua Liu) 교수 등 세 분을 기조연사로 초청하였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외국학자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며 우리 학회의 활동을 외국학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또한 외국학자들의 저명한 논문을 쉽게 투고받을 수 있으므로 영문학술지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10. 정기(正基)우수논문상

한일동 교수는 한국번역학회 제 6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정기(正基)우수논문상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유명학술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우리 학회의 학술지 『번역학연구』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에 시상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해왔었다. 그런데 우리 학회의 제 3, 4대 회장을 역임한 김지원 고문이 이 상의 시행에 꼭 기여하고 싶다고 하여 다른 기관의 요청을 물리치고 정기우수논문상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1년 여름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2011년 10월 19일 세종대 근방의 모처에서 김지원 고문과 한일동 회장이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최희섭 수석부회장, 전현주 재무이사가 배석하였다. 아래는 약정서 교환 장면이다.



좌: 한일동, 우: 김지원 (존칭, 직함 생략)

논문상의 명칭으로 “정기”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김지원 고문의 아호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술상이 상금이나 부상을 후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이름이나 아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서도 논문상의 명칭으로 김지원 고문의 아호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상의 공식 명칭은 “한국번역학회 正基 논문상”으로 전년도에 발간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두 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상반기의 학술지에서 1편, 하반기의 학술지에서 1편을 선정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기 김지원 고문이 매년 후원하는 20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한일동 교수는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정기우수논문상을 제정,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회 회원을 확대하고 학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소식지를 발간하고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들의 친목도모에 지대한 노력을 하였다.

2.11. 타 기관과의 협력

한국번역학회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만 든다. 하나는 한국번역능력검정원(ETAT)과 업무협력관계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번역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번역능력검정원(ETAT)과 2000년 10월부터 진행되어온 업무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필요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하기로 2001년 8월 25일 개최된 운영이사회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번역능력검정원(대표: 박희선)은 한국 번역 학회의 정기 학술발표대회(연 2회)와 학회학술지 발간(연 2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번역학회는 ETAT이 실시하는 번역시험의 후원기관이 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4권2호 125). 두 기관은 한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번역능력 검정시험의 시행이 중단되자 경비 지원도 없어졌다.

또 하나는 유명번역문학상이다. 유명학술재단(이사장: 유혁수)에서 2007년 봄 한국번역학회에 번역상 제정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유혁수 유명학술재단 이사장이 김지원 교수(당시 4대 회장)을 방문하여 번역상을 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번역학회에서 맡아서 제정하여 시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당시 편집위원장인 최희섭 교수가 주도하여 우리 학회의 회원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대상작을 선정하였다. 시행규칙과 심사 규정, 홍보 및 대상작 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회원들이 진행하여 2007년 12월에 제 1회 유명번역문학상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제 3회까지 우리 학회에서 심사를 주관하고 대상작을 선정하였으나 이후 유명학술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협조관계가 단절되었다.

3. 나가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번역학회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역동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렇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학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고문들이 당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이외의 타 언어권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창립 초기에는 타 언어권 회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영어 위주로 되어 있어 타 언어권 회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번역학이 영어권에 국한된 학문이 아닌데, 타 언어권 회원의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번역학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이의 시정을 위해 방안

을 마련하고 노력하라. 예를 들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편집진의 구성에서부터 타 언어권 회원의 자주성을 부여하는 등, 각 언어별 발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한국번역학회의 분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

둘째, 각국의 번역 전통을 연구하는 것도 생각해보라. 고유명사, 서적명, 인명 등의 번역에 어려움이 많다. 서양언어의 경우에는 음차번역을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동양언어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서양 위주의 번역학 전통을 동양위주의 번역학 전통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를 위해 동양의 번역 전통을 연구하여 그에 따른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서양의 번역이론과 접목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의 번역학 연구를 선도하라. 한국의 번역학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이 적다. 번역은 인간의 언어 사용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번역학은 세계적으로도 역사가 짧다. 번역학은 1983년 현대언어학회의 『현대어학회 국제 서지 목록』(*Modern Language Association International Bibliography*)에 등재된 이래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되었다(김효중 34). 한국번역학회가 1999년에 창립되었으므로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학술단체가 조직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의 번역학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연관단체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번역학 관련 연구소와 학술단체가 여러 곳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소와 학술단체가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소나 학술단체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학회 회원이다. 일부 회원의 경우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보이기도 한다. 번역관련 단체의 연합회나 어떤 조직을 우리 학회가 선도하여 구성한 후, 각 연구소와 학술단체가 각기 특화된 분야를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나라의 번역학이 매우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연구 영역을 확대하라. 순수 번역학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번역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 번역학은 실용학문이므로 순수 이론만 연구하기 보다는 실생활과 접목되는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번역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언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한국번역학회의 위상에 비하여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적다. 회원 중에서 언론사와 관련이 있는 분을 홍보이사로 위촉하여 학회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거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언론에 이슈가 될 만한 것을 발굴하여 각 언론사 문화부에 보내고 보도자료를 보내야 한다.

일곱째, 번역물을 연구업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업적을 낮게 평가하고 논문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번역도 논문을 집필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전에 대학교육협의회에 번역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어 다소 성과를 거둔 일이 있다. 각 대학 및 대학교협에 공문을 발송하여 번역물을 정당하게 평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주요어: : 번역, 번역학, 『번역학연구』, 한국번역학회

참고문헌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김효중 (2000) 「번역의 역사와 이론」, 『번역학연구』 1(1): 33-57.
- 최희섭 (2007) 「『번역학연구』의 현황과 국내문헌 인용 고찰」, 『번역학연구』 8(1): 323-45.
- 한국번역학회 (2000) 「한국번역학회 주소록」, 『번역학연구』 1(2): 191-225.
- 한국번역학회 옮김 (2009)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 한국번역학회 편 (2000) 『번역학연구』 1(1).
- 한국번역학회 편 (2000) 『번역학연구』 1(2).
- 한국번역학회 편 (2003) 『번역학연구』 4(2).
- Baker, Mona (ed) (198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Oxford: Routledge.
- Carr, E. H. (1961) What is History? London: Penguin Books.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홈페이지 (2013.02.20.)
http://ilis.yonsei.ac.kr/subbbs/sub.php?grid=g1&top_id=g1_b3&skin=basic2&id=1&view=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2013.02.20.)
<http://immun.yonsei.ac.kr/>
- 학술진흥정책자문위원회 학술지 선호도 조사 결과 (2013.01.15.)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40/10418240.html?ctg=>
- 한국의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홈페이지 (2013.02.20.)
<http://www.hufscit.com/iti/history.html#t>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Choi, Hie Sup
(Jeonju University)

As is well-known,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KATS) held the inaugural meeting in 1999 at Sejong University. Before the KATS held the inaugural meeting on October 30, 1999, professor Ryu Myung-woo and Kim Ji-won prepared the establishment of the KATS for almost a year. Kim Yong-kwon was invited as first president of the KATS.

Within a yea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 society, the first volume of its academic journal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was published. Until 2007, the journal continued to be published biannually. From 2008 to 2011, they published the journal as a quarterly and since 2012, the journal is being published five times a year including an English volume. The society's journal was listed in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07.

When the society was published, the members were about 250, and within a year the members were increased to more than 550. The Korean-translation of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was published in 2009 after almost six years's work.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held in 2009. The best paper award was established in 2011 with the fund of advisor Kim Ji-won.

It has past 15 years since KATS was established. During that time, the society comes to have its own history and it is needed to leave its history in writing. That is why the advisors, the former presidents of the society are interviewed. This is the record of their interview. Some informations scattered in the journals are included.

▶ Key Words: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KATS)